

전남 중부권

나주 시민 공감대 못 얻은 '삼현육각 연주단'

시립국악단으로 새롭게 재편

11월 창단 목표, 8~9월 중 단원모집 공고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등 활동 효과가 미흡했던 '나주 시립 삼현육각(三絃六角) 연주단'이 지역 국악인 등을 포함시켜 새롭게 '시립국악단'으로 재편된다. '삼현육각'은 피리가 둘, 대금, 해금, 장구, 북이 각각 하나씩 편성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통 문화유산인 국악의 계승·보존 발전을 위해 최근 '시립국악단'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마련, 시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설립되는 '시립 국악단'은 현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을 재편하는 것으로 정원의 2배인 총 30명 규모로 부시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상임 지휘자와 단무장 각 1명에 단원 27명으로 확대되며 기악·창악·무용·사물놀이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11월 설립목표로 오는 8~9월 중 시립 국악단원 모집공고를 내고 추가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현 삼현육각 연주단원은 남은 위촉기간을 승계한 후 기악부·창악부로 재편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삼현육각 연주와 같은 전문적인 국악 장르의 계승 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국악을 쉽게 접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보다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포함한 국악단 설치가 요구됐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나주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의 경우 단원들의 임금 등 운영비로 올해 5억1400만원이 배정되는 등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았고 전통 문화 계승차원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

대를 얻지 못했다.

나주시의회 A 의원은 "대부분 외지인으로 단원들이 구성돼 지역 전통 문화의 계승 차원보다는 단원들의 생계형 수단으로 전락해 지역 국악인재 양상에도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의원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지원 받고 있는 '시립 삼현육각연주단'이 특정한 인을 위해 설립된 소유물로 지역사회에 내비쳐지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립 삼현육각' 김기종 단장은 "전통 문화인 삼현육각을 국악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나주 삼현육각의 명맥을 지키고 이어온 만큼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편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담양 고서 포도수확 한창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속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 고서면 포도밭에서 포도수확이 한창이다. 고서포도 농업인들은 비가림시설 재배로 일반 농가보다 1개월가량 앞당겨 수확, 1kg 당 3만5000~4만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나주 민간농정기구 '농어업회의소' 9월 설립

지원 조례 제정 등 구체화

민간 농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오는 9월 나주에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원근거 등이 될 농어업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설립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는 예산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하고 농어업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상담,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

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농업인의 민의 수렴과 농정자문, 각종 위탁사업 등도 수행한다.

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구성된 추진단을 중심으로 회원 모집 등에 나서 오는 9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기로 했다.

회원은 농업업 등 생산자뿐만 아니라 식품, 유통 등 관련업 종사자까지 모두 포함되며, 영농조합·농협 등도 단체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역 상공인의 법적 기구인 '상공회의소'와 유사한 기구로 지난해 10월 나주와 전북 진안, 강원 평창 등 3곳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전체 농가 1만 4000여가구 중 최소 20%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 농산물 개방 여파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민의 권익을 지키는 민간조직으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강진 고려청자 '천년만의 귀향'

日本 소장품 등 52점 30일부터 특별 전시

고려시대 유일의 왕실 관요(官窯= 관아에서 운영하던 가마)가 있었던 강진에서 제작된 국보·보물급 고려청자가 1000여년 만에 금의환향(錦衣還鄉)한다.

강진군은 오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열리는 '제39회 강진 청자 축제' 기획행사의 하나로 '고려청자, 천년만의 강진 귀향'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500여년 동안 청자문화를 꽃피웠던 강진에서 생산돼 외지에 나가있는 국보와 보물급 청자를 전통 고려청자의 본향인 강진에서 관광객들에게 직접 만나볼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6점을 포함한 대어 유물 22점, 강진청자 박물관 소장유물 30점 등 모두



52점을 일반에 공개한다.

특히 그동안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본의 이데미츠 미술관과 고려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강진산 고려청자 유물도 선보인다.

이데미츠 미술관 소장품인 '청자유각 모란문 표형주자·승반' <사진> 등 3점은 고려청자의 전성기인 12세기 강진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900여년 만에 다시 강진 땅을 밟게 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한성욱 민족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전시가 일반 관광객과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편백나무 숲 장성 축령산으로 오세요

내달 13~15일 산소축제

"피톤치드 가득한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숲 축령산으로 오세요."

장성군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축령산 휴양림 일원에서 '제 4회 축령산 산소축제'를 개최한다. '편백숲에서 만나는 푸르름, 건강 그리고 정'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는 서삼면 모

암마를 번영회가 주최하고 축령산 산소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주 무대공연 등 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과감히 생략하고, 지난해에 호응을 얻었던 통기타 가수 숲속 공연 등 소규모 공연과 피톤치드 체험중심의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진행된다.

/중부취재본부=김홍희기자 yongho@

전 북

김제에 느릿느릿 명품 도보길

금구 산책로 등 3곳 69km 사업비 10억들어 완공

김제시는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모악산 마실길·금구 명품길(사진)·새만금 바람길 등 69km 길이의 3개 도보길을 최근 완공했다.

'모악산 마실길'(35km)은 2개 코스로 구성된다.

1 코스는 유각재→ 귀신사→ 쓰러재→ 금구 영천마을→ 서강사→ 서릿골마을→ 금평저수지→ 금산사→ 청룡사 길로 이어진 완주 배재구간이며, 2 코스는 금산사→ 닭지붕→ 도통사 길로 백운동 마을로 이어진다.

이 길은 눈앞에 병풍처럼 펼쳐진 산자락을 보면서 마음에 여유로움을 갖고 느릿느릿 걸을 수 있다.

'금구 명품길'(24km)은 3개 코스로 구성된다.

1 코스는 금구면사무소에서 출발해 선암저수지→ 축령마을→ 당월저수지→ 편백나무 숲→ 양석 냉굴→ 대하교까지이며, 2 코스는 당월저수지→ 당월녹색농촌체험마을→ 금구



삼성생명연수원→ 금구면사무소까지이다.

울 상반기에 조성한 3 코스는(봉두산길) 봉산토성→ 연리지 길→ 비락바위→ 우물·신우대 숲→ 당월저수지로 이어진다. 이 길은 산과 들과 바람, 옛 선현들의 고결한 숨결을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건강에 아주 좋은 길이다.

'새만금 바람길'(10km)은 진봉면사무소에서 출발해 진봉방조제 길→ 전선포→ 망해사→ 심포항→ 봉화산 봉수대→거전리 구간이다.

이 길은 새만금 내부지역과 광활한 지평선을 조망하면서 삶에 지친 심신을 달래기 좋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새만금 홍보관' 10월께 준공

전망대·체험공간 등 설치

'새만금 홍보관'이 오는 10월께 준공된다.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에 따르면 군산시 오식도동에 지하 1·지상 6층 규모로 짓는 홍보전시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홍보관은 힘차게 바다를 향해 전진해가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농어촌공사 사무실과 새만금 홍보전시실, 열상실, 분양상당실, 회의장 등으로 구성된다.

1층 로비에는 새만금 내부개발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이 들어선다. 또 5층에는 새만금산단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된다. 특히 1층 로비 전시공간에는 지름 4m의 대형 원형 조형물과 산단의 하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린 라이프(Green Life) 24시', 산단 모형이 설치되는 등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안치호 단장은 "오는 10월 전시관이 문을 열면 새만금 관광의 핵심 코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전통 유교문화 체험 성균관 한림원 학생들이 지난 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정을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에서 유교 경전을 강독하고 전통 유교문화를 체험하는 '임간(林間) 수업'을 하고 있다. 이번 수업은 서원에 배향된 선현들의 정신을 배우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담양 전차포사격장 고창 이전 반발

육군, 부지 선정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 고창군의회 반대특위 구성 등 철회 요구

국방부 소속 육군기계화학교가 담양군 대전면 서옥리에 소재한 전차포사격장을 고창으로 이전하기 위한 부지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담양군에 위치한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이 고창군 고수면 두평리 일대로 이전하기 위해 부지선정 타당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육군기계화학교로부터 정식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기계화학교는 4일자 공문에서 "사격장을 보수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용역업체가 주민 및 지자체의 의견 조사활동(7월11~22일)을 하려 하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과 함께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 사격장 고창이전 계획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결의문을 의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군의회는 14일 제1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5명(윤영식·이상호·조병익·임정호·조규철 의원)를 위원으로 하는 '육군기계화학교 전차포사격장 고창이전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만우 의장은 "군민의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전차포사격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어 군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

다"며 "이전계획과 관련된 용역계약을 즉각 철회하고 고창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특위원회를 통해 해당 전차포사격장 이전시 예상되는 피해규모 산정과 체계적인 실태 파악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육군기계화학교 포탄사격장 고창 이전 백지화를 위해 범 시민사회단체를 구성, 포사격장 범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육군기계화학교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는데도 교육생이 늘어나면서 부지가 협소해 담양의 전차포 사격장을 타지로 이전하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문은 선정된 몇 개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전주 한옥마을 매주 금·토 한여름밤의 콘서트

전주시 7개 예비 사회작업(문화예술분야)이 22일부터 9월 3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밤에 한옥마을 한방문화센터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 참가한 기업은 (사)팍두,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 (사)마당, 문화포럼 나니레 등 총 7개 기업이다.

이번 콘서트는 인형극, 뮤지컬 갈라쇼, 국악 실내악, 오케스트라,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10월 '근대 역사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을 가진 만19세 이상의 신체건강 한 성인으로 주 1회, 1년 이상 봉사활동이 가능한 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메일(kjk10789@korea.kr)이나 박물관 사무실(063-450-4541)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도우미로서 활동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순창군 농림수산물 기획 공모 사업 선정

순창군이 농림수산물 기획 평가원에서 공모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선정돼 2년 동안 국비 4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순창 건강장수연구소는 지난 달 서울대, 한남대 등 국내대학 등과 공동으로 '호남 건강장수지역의 우수한식 발굴 및 한식 세계

화를 위한 문화상품과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공모에 신청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건강장수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명품 한식의 콘텐츠 개발을 위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대명리조트 변산' 개관 4돌 주민 한마당 잔치

'대명리조트 변산'은 최근 개관 4주년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위한 '한마당 잔치'를 열어 호응을 받았다. 이번 잔치는 지역 노인들을 초청해 전북 국립국악원의 신명난 공연과 함께 불교지 전골 요리 등을 제공했다.

대명리조트 이재훈 총지배인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경조잔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